



세계경제 포커스

World Economy Focus



2019년 10월 22일 Vol. 2 No. 33

ISSN 2635-5981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지정 배경 및 특징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Tel: 044-414-1285)



차 례

1.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지정 배경
2. 신규 자유무역시험구 육성 방향 및 주요 특징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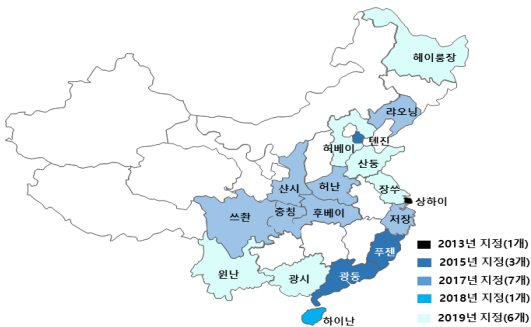
- ▶ 2019년 8월 말 중국정부가 변경지역을 포함한 6개 지역(산둥·장쑤·허베이·광시·윈난·헤이룽장)을 자유무역 시험구로 추가 지정한 것은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정부의 대외개방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광시·윈난·헤이룽장·산둥은 각각 아세안, 러시아, 한국과의 경제협력 거점임.
 - 중국정부는 기존 자유무역시험구가 다른 지역 대비 외국인투자 증가율이 높고 통관 간소화로 물류비용이 줄어드는 등 대외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중국의 대표적인 대외개방 정책 사례로 홍보
- ▶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의 △ 정부직능 전환 △ 투자 개혁·개방 △ 무역 원활화 △ 금융서비스 개방·혁신 관련 주요 정책을 공통으로 도입하는 한편, 지역 특색·발전전략에 맞춘 정책을 별도로 시행할 계획임.
 - △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 △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 국제무역 단일창구 관리제도 등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의 대표적 개혁·개방 조치들이 6개 신규 자유무역시험구에도 모두 도입될 예정
 - 산둥·허베이는 각각 해양경제·송안신구 발전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광시·윈난·헤이룽장은 변경지역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는 △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및 일대일로와 같은 국가 대전략 관련 정책 비중이 높고 △ 획기적인 투자개방 조치보다는 제도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 외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走出去)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특징이 나타남.
 - △ 산둥은 한·중, 일·중 AEO 인증제도 강화 등 한국·일본을 타깃으로 한 정책을 △ 광시·윈난은 중·동남아 AEO 인증제도 강화, 중·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 국가를 겨냥한 정책을 △ 헤이룽장은 러시아 은행과의 상호화폐 교환서비스 강화와 같이 러시아에 한정된 정책을 각각 시험구 핵심 육성 방향으로 삼고 있음.
 - 산둥·장쑤·광시·윈난·헤이룽장은 모두 일대일로 경제화랑이 주변국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위치한 지역들로, 초국경 철도 연결·복합 운송시스템 도입·물류센터 구축과 같은 일대일로 정책을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으로 재차 강조
 - 투자개방 조치는 대부분 기존의 자유무역시험구 및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베이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도입하는 수준임.
 - 중국기업 해외진출 지원창구 건설, 해외 진출기업 자금유통 활성화 등이 자유무역시험구의 투자개혁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음.
- ▶ 중국이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를 기반으로 러시아·아세안 등지로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한·중 경쟁 심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경제협력 심화를 주 육성 방향으로 하고 있는 산둥 자유무역시험구를 △ 한·중 산업단지 발전 △ 교육·관광·의료 서비스 진출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산둥 자유무역시험구에 포함된 옌타이(烟台) 한·중 산업단지에 기존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된 투자·무역 원활화 조치가 적용되도록 요구해볼 수 있음.
 - 산둥 자유무역시험구의 교육, 관광 분야 개방조치를 활용해, 한국 단독 투자로 의료·미용 기술 분야 학원을 설립하거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를 설립하는 방안 모색 가능

1.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지정 배경

■ 중국정부는 2019년 8월 말 산둥(山东), 장쑤(江苏), 허베이(河北), 광시(广西), 윈난(云南), 헤이룽장(黑龙江) 6개 지역에 신규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Pilot Free Trade Zone)를 조성할 것이라 발표함.

-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무역 시스템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도입해 시험적으로 운영해보는 테스트베드로, 중국 내에서 개방도가 가장 높고 투자·무역이 편리한 지역임.¹⁾
 -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개방도가 높은 외상투자 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가 도입되고, 수입화물의 통관 전 반입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 정부직능 전환(행정시스템 간소화·분권화) △ 투자 개혁·개방 △ 무역 원활화 △ 금융제도 개혁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²⁾
- 중국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무역·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자유무역시험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제출한 신청서(자유무역시험구 조성방안)를 평가해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함.
 - 장쑤성의 경우 2016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7년 탈락하였으며, 이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100여 차례 신청서를 수정한 끝에 자유무역시험구 유치에 성공함.³⁾

그림 1. 중국 18개 자유무역시험구의 분포



자료: 저자 작성.

표 1. 2019년 추가 지정된 자유무역시험구

구분	세부 지역
산둥	지난(济南), 칭다오(青岛), 엔타이(烟台) 일부 지역
장쑤	난징(南京), 쑤저우(苏州), 련윈강(连云港) 일부 지역
허베이	송안(雄安), 정명(正定), 차오펬이텐(曹妃甸), 다쑹공항(大兴机场) 일부 지역
광시	난닝(南宁), 친저우(钦州), 충저우(崇左) 일부 지역
윈난	쿤밍(昆明), 홍허(红河), 더홍(德宏) 일부 지역
헤이룽장	하얼빈(哈尔滨), 헤이허(黑河), 쉰이펀허(绥芬河) 일부 지역

자료: 国务院(2019), 「国务院关于印发6个新设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通知」.

■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외 경제교류가 활발한 동부 연해지역 대부분이 자유무역시험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인접국과의 교류 거점인 변경지역에 처음으로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되게 됨.

- 중국은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위해 대외 경제교류가 활발한 지역부터 자유무역시험구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6개 지역을 합하면 현재 중국 내 총 18개의 자유무역시험구가 운영 중임(그림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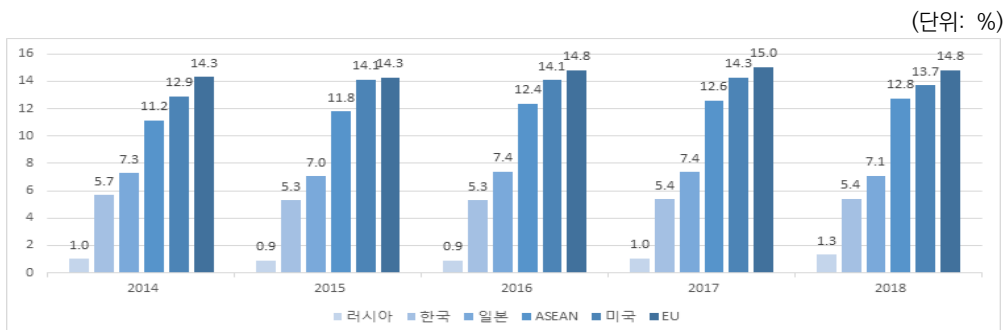
1) 노수연 외(2015),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2)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무역을 확대하려 했으나, 최근에는 자유무역시험구를 설치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에 주력하고 있음.
 3) 苏州新闻网(2019), 「江苏申报自贸区历时7个多月 方案修改上百稿」.

- 중국 내 물동량이 가장 많은 상하이항을 보유하고 개방도가 높은 상하이(上海)에 2013년 중국의 첫 자유무역 시험구가 조성되었으며, 2015년 홍콩·대만과의 협력 교두보인 광둥(广东)·푸젠(福建)에 자유무역시험구가 조성 되는 등 동부 연해지역에 먼저 자유무역시험구가 조성됨.
- 2017년에는 충칭(重庆), 후베이(湖北), 허난(河南)과 같은 내륙 거점지역에, 2018년에는 자유무역항으로 발전 하고 있는 하이난(海南)에 자유무역시험구가 차례로 설립됨.
- 이번에 장쑤, 산둥에 자유무역시험구가 조성되면서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서는 베이징(北京)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됨.⁴⁾
-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헤이룽장, 윈난, 광시가 변경지역 중에서는 처음으로 자유무역시험구를 유치

■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지정은 동부 연해 전 지역이 대외 경제교류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한편,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⁵⁾

- 중국정부는 선도적인 개혁조치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된 자유무역시험구가 대외 경제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12개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하여 전국 평균을 13% 상회⁶⁾
- 통관 간소화 조치로 화물 통관시간이 평균 2~3일 단축되었으며, 기업 물류비용도 약 10% 감소⁷⁾
- 헤이룽장과 윈난·광시는 각각 러시아, 아세안과의 핵심 교역 통로이며, 산둥성은 한국기업의 중국 내 최대 투자지역으로 한·중 협력이 활발한 지역임.
- 아세안·러시아가 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EU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최근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그림 2 참고)

그림 2. 중국 무역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2014~18년)



자료: CEIC Database.

4) 허베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일부 지역(大兴机场片区)이 허베이·베이징에 걸쳐 있어, 베이징도 일부 자유무역시험구를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5) UPK(2019. 8. 26), "China names six new 'free trade zones' amid U.S. trade war"; Bloomberg News(2019. 8. 30), "China Cuts Taxes in Shanghai Free Trade Zone to Lure Investment."
 6) 中国政府网(2019. 8. 26), 「国务院政策吹风会」. 이번에 추가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상하이, 광둥, 푸젠, 톈진, 랴오닝, 저장, 충칭, 산시, 쓰촨, 허난, 후베이, 하이난 소재)의 수치임.
 7) 이상훈 외(2018),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무역시험구 등 자유화 확대 관련 연구』, KIEP 산업통상자원부 수탁용역보고서.

- 장웨이(张威) 상무부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세계 무역·투자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관련국과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자유무역시험구가 신규 지정된 이유 중 하나라 밝히며, 특히 변경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새로운 대외개방 요충지와 경제성장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평함.⁸⁾

■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외개방의 상징인 자유무역시험구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정부의 대외개방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임.

- 중국정부는 2016년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 직전에 7개 자유무역시험구 조성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에 신규 자유무역시험구 조성 계획을 발표해 왔음.
- 이번에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열린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5대 대외개방 조치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그 일환으로 6개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새로 조성할 것이라 공표함.
 - 5대 대외개방 조치는 △ 시장 추가 개방 △ 관세 인하·수입 절차 간소화를 통한 자발적 수입 확대 △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 △ 내·외자 기업 평등 대우 △ 중·EU 투자협정 협상, 한·중·일 FTA 논의 가속화임.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면적을 기존에 비해 두 배로 확대하는 계획을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함께 발표함으로써 대외개방 의지를 과시

2. 신규 자유무역시험구 육성 방향 및 주요 특징

가. 육성 방향

- 6개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된 △ 정부직능 전환 △ 투자 개혁·개방 △ 무역 원활화 △ 금융서비스 개방·혁신 △ 혁신 발전정책 등을 공통으로 도입하는 한편, 각 지역 특색과 발전전략에 맞춘 정책을 별도로 시행할 계획임.⁹⁾
- △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 및 심사비준 전산화 △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 국제무역 단일창구(单一窗口·Single Window) 관리제도 및 화물상태 관리분류제도(仓储货物按状态分类监管) △ 해외인재 출입국 간소화 등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의 대표적 개혁·개방 조치들이 도입될 예정
 - 자유무역시험구 내 기업들은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만 취득하면 생산·경영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요구되는 경영허가증이 최소화되어 신속하고 간편한 영업활동이 가능해짐.¹⁰⁾

8) 中证网(2019. 8. 27), 「商务部研究院副院长张威：沿边地区首次纳入试验区范围」.

9) 国务院(2019), 「国务院关于印发6个新设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通知」.

10)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 제도 도입 이전에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각종 경영허가증(기업이 특정활동을 수행할 때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행정 심사 허가류의 증명서)을 함께 발급받아야 했음. 그러나 동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사업자등록증 이외의 여러 경영허가증은 영업활동을 먼저 시작한 후 발급받아도 되게 되었으며, 심사 절차도 간소화됨. CSF, 「中 国무원 '증조분리(证照分离)' 개혁 범위 확대, 자유무역구 '선봉장'으로」; 해외기술정보 규제시스템, 「사업자등록증과 허가증 분리(证照分离) 추진의 통지」.

- 외국인투자자가 자유무역시험구에 투자 시 다른 지역보다 개방도가 높은 별도의 네거티브리스트가 적용됨.¹¹⁾
-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수출입 물품 통관 시 각 관련 기관의 데이터가 하나의 창구(플랫폼)를 통해 수집·공유되어 통관시간이 대폭 절감됨.¹²⁾
- 또한 자유무역시험구로 반입되는 화물은 상태에 따라 사전 분류(보세·비보세·항구화물)되어 통관 시 적합한 물류·배송 시스템이 신속히 도입됨으로써 운송시간이 절감됨.¹³⁾
- 자유무역시험구 내 기업에 취업·방문하는 외국인 인력은 다른 지역보다 심사절차가 간소화된 비자제도를 적용받음.¹⁴⁾

■ 산동성 자유무역시험구는 ‘대외개방의 선도지(高地)’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별히 △ 해양산업 육성 △ 한·중·일 경제협력 심화에 도움이 될 제도를 마련하고 농산물 무역 원활화, 관광분야 개방 확대조치를 시행할 예정

- 수산생물 육종·바이오제품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글로벌 선박 교역서비스·외국 여객선 수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유무역시험구와 항구·공항 간 연결을 확대하는 등 해운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 제3국 시장 공동 개척, 한·중 산업단지 건설, 의료·양로 센터 건설 등 사업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한·중 및 일·중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¹⁵⁾ 협력을 강화하며, 신선 농산물 통관 간소화, 정기 운항선 위생검역 전산화 등의 제도로 교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중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교역지 중 하나인 산동성은 식품·농산물 검역 상호인증제 도입, 식품·농산물 수출입 집산센터 조성에 노력할 계획
- 신규로 지정된 자유무역시험구 대부분이 투자개방 조치로 교육·항공운수 분야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산동성은 헤이룽장성과 함께 관광분야 개방(외자 여행사가 아웃바운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도 추가로 강조하고 있음.

■ 장쑤성 자유무역시험구는 개방형 경제·산업 업그레이드 선도지역을 목표로 투자·교역 환경 개선 및 제조업 혁신에 주력하고, 일대일로 및 창장경제벨트 전략을 보조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중국 주요 의약제조기지 중 하나로서 최초 수입약품의 통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통관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을 도울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설립하고자 함.
- 차세대 인터넷공정(Internet Engineering)센터, 집적회로 설계 서비스산업 혁신 플랫폼, 건강의료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
- 일대일로 경제회랑의 하나인 신유라시아대륙교 동편 기점인 련윈강(連雲港)을 중심으로 복합 운송센터, 벌크상품 집산센터, 철도 컨테이너 센터를 설립하고, 중·유럽 화물열차에 스마트 안전관리(SSTL)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운송·물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11) 2019년 발표된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 전체에 적용되는 네거티브리스트보다 △ 어업 △ 인쇄업 △ 농업 △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일부 투자 제한을 완화함. 이한나, 김홍원(2019), 「2019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세계경제포커스.

12) China Focus(2018. 11. 22), 「세계은행, 중국 상하이 국제무역 단일창구 조치 추천」.

13) 상하이정부 홈페이지(上海市政府门户网站).

14) KOTRA(2016),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운영 현황 및 시사점」.

15) 일정 자격을 갖춰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수출입 화물 검사 축소 등의 통관 혜택을 제공하는 인증 제도로 AEO 인증기업이 되면 세관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됨. 『한국무역신문』(2013. 7. 2), 「한·중 AEO 상호인증약정 체결·연간 2조 7천억 효과」.

- 허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는 국제 비즈니스·물류 허브, 신형 공업기지 조성을 목표로 비즈니스·물류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숭안신구(雄安新区) 조성, 징진지 협동발전(京津冀协同发展) 전략을 보조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허베이성은 주력산업인 철강·석탄 산업의 영향으로 환경오염 규제가 강력히 시행되고 있는데,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박람회용 상품 통관의 간소화, 국제해운 특송관리센터 설립, 벌크상품 무역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물류·운송 서비스 환경 보완
 - 숭안신구 일부를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해 숭안신구의 주력사업인 금융 선도구·디지털 비즈니스 시범구·생명과학기지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베이징·톈진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이 복잡한 절차 없이도 기존 기업 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지원 서비스 마련

- 광시자치구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중서부 지역 중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는 곳으로, 중국 내륙지역과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성장하기 위해 湄아세안 해상교역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교류 강화사업에 주력
 - 대표 항구인 친저우(钦州)항을 중심으로 복합 운송기지를 건설하고 국제선박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아세안 항구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함.
 - 중·동남아 AEO 인증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 주요 항구에 철도 컨테이너 환적장(还箱点)을 건설하며, 중·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
 - 또한 동남아 지역 위안화 사용 확대를 주 목표로 하는 금융서비스 개혁에 노력하고, 아세안과 공동으로 금융학교(金融合作学院)를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며, 초국경 자동차 여행서비스, 사람·차량의 국경 이동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마련

- 윈난성 자유무역시험구는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육로 연결 거점으로, 인접국과의 육상·항공 교역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 변경지역 협력 △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진출 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주변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 검역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변국과 차량 번호·운전면허 정보를 공유해 차량의 출입국 수속 시간을 단축하며, 취업허가증 발급 간소화로 인적 왕래 확대
 -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홍허(红河)를 중심으로 해외 의약 기술자·기구를 유치해 복제약·중의약 연구개발 플랫폼을 조성하며, 인접 국가들과 관광 노선 연결
 - 방글라데시·미얀마 등과 경제회랑을 구축하고, 제5자유 운수권¹⁶⁾ 등 국제항공운수권을 취득해 쿤밍(昆明)을 항공허브로 발전시키며, 초국경 콜드체인망·공공 물류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기업이 주변국에서 운영하는 화물차량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정차·하역할 수 있도록 허용

16) 자국을 출발해서 A국가에서 여객·화물·우편을 싣고 B국가로 갈 수 있는 권리.

■ 헤이룽장성 자유무역시험구는 동북아 교통·물류 허브 및 러·동북아 협력 허브를 목표로 △ 동북진흥 신동력 육성 △ 러·동북아 교역환경 개선에 주력하고자 함.

-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융자 확대, 해외 인재·기술 유치 지원으로 첨단장비 제조·신에너지 등의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 중·러 철도 연결을 강화하며, 에너지 수입 저장기지·해외 농업 협력단지 건설, 신선 농산물 통관 및 박람회용 제품 반입 절차 간소화 등으로 원활한 교역환경 조성
- 자유무역시험구 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하얼빈(哈尔滨)에 문화수출기지를 조성하며, 중국 은행·러시아 상업은행 간 상호화폐 교환(现钞跨境调运) 시스템을 강화함.

표 2. 6개 신규 자유무역시험구의 조성방안

지역	조성 목표	주요 정책
산둥	대외개방 선도지 (高地)	① 정부직능 전환: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화, 심사비준 전산화 ② 투자 개혁·개방: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교육·항공운수·관광 분야 개방 확대 ③ 무역 원활화: 화물상태 관리분류제도 시행, 농산물 검역 국제 상호인증제 모색, 중고 전기설비 수입·가공 수출 및 미술품 통관 간소화,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정책 ¹⁾ 도입, 자동차 수입항구 건설, 자동차 병행수입 ²⁾ 시범기업 수 확대, 식품·농산물 수출입 집산센터 조성, 무역 전산화 ④ 금융 개방·혁신: 위안화의 국경간 사용 확대, 국경간 투융자 원활화, 외자금융기관 설립 지원, QDIE(역내 적격 투자기업) ³⁾ 시범정책 연구 ⑤ 혁신 발전: 혁신 플랫폼 건설, 외국 유명대학 진출 지원, 홍콩·마카오 단독투자 의료기구의 설립 허용, 의료기기 등록인 제도 ⁴⁾ 도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인재 출입국 간소화 ⑥ 해양산업 육성: 해양 특색산업 발전 가속화, 해양분야 국제협력 확대, 해운서비스 강화 ⑦ 한·중·일 경제협력 심화: 제3국 시장 공동 개척, 한·중 산업단지 건설, 의료·양로 건강센터 건설 지원, 한·중/일·중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강화, 신선 농산물 통관 간소화, 정기선 위생검역 전산화
장쑤	개방형경제·산업 업그레이드 선도지역	① 정부직능 전환: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 기업 등록 신속 처리,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화, 심사비준 전산화 ② 투자 개혁·개방: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교육·항공운수 분야 개방 확대, 중국기업 해외진출 창구 건설 ③ 무역 원활화: 국제무역 단일창구 건설, 식품·농산물 검역 국제 상호인증제 모색,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정책 도입, 자동차 수입항구 건설,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기업 수 확대, 최초 수입약품 통관 관리 시스템 마련, 무역 전산화 ④ 금융 개방·혁신: 중외 합자은행 및 민영 금융기구 설립 지원, 실물경제 금융지원 서비스 강화, 국경간 쌍방향 주식투자기금 설립 모색, QDIE 시범정책 연구 ⑤ 혁신 발전: 첨단제조업 육성, 현대적 서비스업 클러스터 구축, 외자 R&D센터 유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인재 출입국 간소화 ⑥ 국가 대전략 정책 협조: 복합 운송센터 구축, 벌크상품 집산센터 구축, 해외 물류기지 건설 등을 통해 일대일로 교차지 기능 강화, 창장생태문명 혁신센터 건설, 현대적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창장삼각주·창장경제벨트 협력 강화
헤이베이	국제 비즈니스·물류 허브 신형 공업기지	① 정부직능 전환: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화, 환경 영향 크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록제도(承诺备案制) 실시 ② 투자 개혁·개방: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교육·항공운수 분야 개방 확대, 중국기업 해외진출 창구 건설 ③ 무역 원활화: 박람회용 상품 통관 간소화, 승안신구에 종합보세구 설치,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기지 건설, 국제 해운특송관리센터 설립, 국제 벌크상품 무역 지원, 복합 운송센터 및 항공운수 보험기구 설립 ④ 금융 개방·혁신: 외자 건강보험기구 설립 지원, QDIE·QFLP(적격외국유한책임파트너) ⁵⁾ 시범정책 연구, 외환관리제도 개혁, 해외 위안화 대출업무 확대 ⑤ 첨단산업 육성: 바이오의약 국제 R&D 협력 확대, 약품 통관절차 간소화, 의료기기 등록인 제도 도입, 첨단장비제조설비 AS 및 중고 R&D 핵심설비의 통관 제약 완화 ⑥ 승안신구 발전: 금융혁신 선도구 조성, 디지털 비즈니스 시범구 조성, 생명과학 및 바이오기술 혁신 발전 추동 ⑦ 징진지 협동발전 추동: 중관춘 및 빈하이신구와 산업협력 강화, 이전기업 지원서비스 확대

지역	조성 목표	주요 정책
광시	중국 중서부· 해상 실크로드 연결 관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부직능 전환: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제도 개혁, 심사비준 전산화 ② 투자 개혁·개방: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교육·항공운수 분야 개방 확대, 문화창의·스포츠 국제협력 확대, 기업의 해외 농업 협력·진출 지원, 금융기구의 해외자산 처리 지원 ③ 무역 원활화: 국제무역 단일창구 건설, 2단계 통관제도(两步申报) 실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정책 도입,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기업 수 확대, 최초 수입약품 통관관리 시스템 마련, 미술품 통관 간소화, 무역 전산화 ④ 금융 개방·혁신: 동남아지역 위안화 사용 확대, 국경간 투융자 원활화, 민영 금융기구 설립 지원 ⑤ 혁신 발전: 과학기술 혁신 지원, 중·아제안 기술이전센터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인재 출입국 간소화 ⑥ 對아제안 국제 육·해상 무역 신통로 구축: 중서부 지역과의 육·해상 무역통로 연결 강화, 중서부 지역의 對아제안 산업단지 유치, 인도차이나반도와의 국경간 화물 운송시스템 강화, 동남아 주요 항구에 철도 컨테이너 환적장 건설, 중·동남아 AEO 인증 협력, 중·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건설 ⑦ 일대일로 연결 통로 구축: △ 복합 운송기지 및 중·아제안 항구도시 네트워크 구축, 국제선박등록제도 개방 확대로 서부지역 육·해상 연결 관문 항구 조성 △ 경제회랑 건설, 초국경 자동차여행 육성, 소액 변경 무역 지원, 사람·차량 국경 이동 자동화 등을 통해 중·인도차이나 육로 관문 조성
윈난	남아시아· 동남아 연결 대동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부직능 전환: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화, 심사비준 전산화, 직업자격 국제 인증 협력 확대로 해외 인재 취업기회 확대 ② 투자 개혁·개방: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교육·항공운수 분야 개방 확대 ③ 무역 원활화: 국제무역 단일창구 건설, 검역·인증 제3자 서비스 확대, 동식물 및 관련제품 검역 심사비준과 관련한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실시, 바이오의약품 통관 원활화, 박람회용 제품과 관련한 검역 심사비준 간소화, 수출품 해외창고 및 변경창고 건설 지원, 국제 특송관리센터 건설,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정책 도입 지원, 미술품 통관 간소화, 자동차 수입항구 및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기지 건설 ④ 금융 개방·혁신: 동남아 국가의 외자 금융기구 설립 지원, 주변국과의 금융감독관리 협력 확대, 해외 위안화 사용 확대, 해외 투융자 원활화 ⑤ 변경지역 경제사회 발전 신모델 구축: 주변국과 통관 편리화 시스템 구축, 출입국 차량 수속 간소화, 자동차 번호판·운전면허 정보 교환, 동식물 검역 원활화, 취업허가증·비자 발급 간소화로 변경지역 인적 왕래 확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과학기술 협력 확대 ⑥ 남아시아·동남아시아로의 진출 중심지 구축: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미얀마 경제회랑 구축, 중·인도차이나반도 경제회랑 육로 대동로 건설, 쿤밍에 항공허브 조성, 초국경 물류센터 구축, 변경지역 자원 저장기지 건설, 국내의 첨단의료기구 및 해외 의약 기술자 유치, 변경 관광시험구·초국경 관광 협력 확대로 세계일류 건강리빙센터 조성
하이룽상	동북아 교통·물류 허브 및 러·동북아 협력 허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부직능 전환: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화, 비즈니스환경 법제화 ② 투자 개혁·개방: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교육·항공운수·관광 분야 개방 확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서비스 강화 ③ 무역 원활화: 국제무역 단일창구 건설, 화물상태 관리분류제도 시행, 주변국과의 신선 농산물 통관 간소화, 바이오의약품 통관 원활화,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건설 지원,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정책 도입, 자동차 수입항구 및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기지 건설, 하얼빈에 문화 수출기지 건설 ④ 금융 개방·혁신: 금융 투융자 원활화, 해외 위안화 사용 확대, 러시아 상업은행과 위안화·루블 상호화폐 교환(现钞跨境调运) 시스템 강화 ⑤ 동북진흥 신동력 육성: 첨단장비제조·스마트제조·신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 신약 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기반 융자 확대, 선전에 산업단지 건설해 혁신발전 협력 모색, 기업의 해외 인재·기술 유치 지원 ⑥ 러시아·동북아 협력 요충지 건설: △ 중·러 철도 연결 강화, 하얼빈 국제항공허브 건설 등으로 교통·물류 허브 구축 △ 수입 에너지 저장기지 건설, 해외 농업 협력단지 건설, 중자·수산물 수입 감독관리센터 구축 등으로 변경지역 개방수준 제고 △ 외국인 출입국 간소화, 국제유람선 항구 건설, 글로벌 첨단 의료기업 및 R&D 클러스터 조성, 박람회용 제품 반입 간소화 등을 통해 원활한 교류 환경 조성

- 주: 1)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일부 지역에서 개인이 B2C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정부가 허용한 품목(화장품, 영유아 분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해당하는 외국 상품을 직구할 때, 구입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회당 5,000위안·연간 26,000위안) 통관신고서 및 최초수입허가증 없이도 수입을 허용하고 세수 혜택을 부여한 정책임.
- 2) 같은 브랜드의 자동차를 공식 수입업체 외 다른 여러 수입업자가 중국에 들여와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15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 시행.
- 3) 역내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이나 헤지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2014년 선전(深圳)에서 처음 시행.
- 4) 의류기기 연구개발·제조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류기기의 개발·제조 허가증을 분리한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의류기기 개발자(등록인)가 해당 의류기기를 다른 기업에 위탁해 생산할 수 있게 됨. 상하이·톈진 등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먼저 시행됨.
- 5)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에 한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조달한 자금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본토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2011년 상하이에서 처음 시행.

자료: 国务院(2019), 「国务院关于印发6个新设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通知」.

나. 주요 특징

■ 신규 지정된 6개 자유무역시험구는 주변 특정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혁신방안을 많이 담고 있음.¹⁷⁾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산둥성은 한·중, 일·중 AEO 인증제도 강화 등 한국·일본을 타깃으로 한 정책을 △ 광시·윈난 지역은 중·동남아 AEO 인증제도 강화, 중·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 국가를 겨냥한 정책을 △ 헤이룽장은 러시아 상업은행과의 위안화·루블 상호화폐 교환 시스템 강화 등 러시아에 한정된 정책을 시험구의 핵심 육성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음.

■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는 각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핵심 지역발전정책 및 일대일로·장진지 일체화와 같은 시진핑 정부의 국가 대전략을 강화하는 정책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음.¹⁸⁾

- △ ‘남색경제구(藍色經濟區)’를 육성 중인 산둥성은 해양경제 발전 관련 정책을 △ 허베이성은 승안신구 조성 관련 정책을 △ 헤이룽장은 동북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자유무역시험구 육성방안에 포함시킴.
- 산둥·장쑤·광시·윈난·헤이룽장은 모두 일대일로 경제회랑이 주변국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위치한 지역들로, 칭다오·렌윈강·난닝과 같은 교통·물류 거점을 자유무역시험구에 포함하여 초국경 철도 연결·복합 운송시스템 도입·물류센터 구축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는 일대일로 전략의 인프라 연결·무역 원활화 정책과 중첩됨.

■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는 획기적인 투자개방보다는 제도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투자개방 조치는 대부분 기존 자유무역시험구 또는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인 베이징(北京)에서 이미 시행된 조치를 도입하는 수준임.

-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시에는 6대 서비스업(금융·해상운송·비즈니스서비스·전문서비스·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방 확대가 핵심 정책으로 공표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여러 개방조치가 시행되었음.¹⁹⁾
 - 중국 최초로 외국인 독자의 공연기획사 설립이 허용되고, 일시적이거나 외국인 독자 의료기관 설립도 허용
- 그러나 자유무역시험구가 여러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정적인 장소에서 시도해볼 수 있었던 획기적인 개방조치 도입은 어려워지고, 전국 도입이 가능한 수준의 개방조치는 비(非)자유무역시험구 지역으로도 이미 확대 적용된 것들이 많아 신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특별히 새로운 개방조치가 나오기 어려운 상태임.
- 일례로 2014년에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독자 공연기획사 설립이 지금은 중국 전 지역에서 가능해진 상태임.²⁰⁾

17) 『中证网』(2019. 8. 27), 「商务部研究院副院长张威：沿边地区首次纳入试验区范围」.

18) *South China Morning Post*(2019. 9. 5), “China extends pilot trade zones to strategic border regions.”

19) 노수연 외(2015),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외국인 독자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혁신적인 개방조치를 시행했다가 철회하였는데,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범위가 2013년 와이가오차오(外高桥)보세구를 중심으로 하는 외곽지역에서 2014년 말 루자주이(陆家嘴)금융지구 등지로 확대된 것이 동 개방조치가 철회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됨.²¹⁾
- 2019년 발표된 네거티브리스트에 따르면 자유무역시험구가 다른 지역보다 개방도가 높은 항목은 6개에 불과²²⁾
- 후발주자인 이번 6개 자유무역시험구 역시 네거티브리스트와 별도로 강조하고 있는 투자개방 조치가 △ 교육 △ 항공운수 △ 관광 분야 정도로 많지 않으며, 주로 기존 자유무역시험구 또는 베이징(北京)에서 이미 시행된 조치임.
- [교육] 외국인 독자 영리성 교육훈련·직업기술훈련 기관 설립이 허용됨.²³⁾
- [항공운수] 외자 독자 항공운수 판매대리 기업 설립이 허용됨.²⁴⁾
- [관광] 외자 여행사의 중국 내 아웃바운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대만 제외)²⁵⁾

■ 또한 외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나타남.

- △ 장쑤성, 허베이성, 헤이룽장성은 모두 투자개혁 방안 중 하나로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창구 건설을 내세우고 있으며 △ 광시자치구는 중국기업의 농업분야 주변국 진출을 지원할 예정임.
- 윈난성은 자유무역시험구에 설립된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외국에서 획득한 자산·임업권·채광권 등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고자 함.

■ 내수 진작, 국경간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해 최근 중국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역 활성화 정책이 6개 신규 자유무역시험구에도 도입됨.

- 연간 완성차 수입실적이 1,000대 이상인 항만에만 허용되고 있는 자동차 병행수입 허용정책이 신규 자유무역시험구에도 시행될 예정²⁶⁾
- 중국의 37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정책(跨境电商零售进口政策)을 신규 자유무역시험구에도 적용²⁷⁾

20) 이한나 외(2019), 「2019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세계경제포커스.

21) 노수연 외(2015),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22) △ 농업 △ 여업 △ 인쇄업 △ 광물 가공 △ 교육 △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 일부 항목임. 이한나 외(2019), 「2019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세계경제포커스.

23)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독자 직업기술훈련 기관 설립을 허용하여 비즈니스 기획·양로·요양·미용 등 다양한 분야의 외자 훈련기관이 설립됨. 『人民网』(2017. 1. 13), 「中国首家外商独资职业技能培训机构在上海自贸区开业」; 『劳动报』(2019. 3. 20), 「沪引进8家外资职业技能培训机构」.

24) 항공운수 판매대리 기업이란 항공사를 대신해 여객·화물 항공운수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업으로, 2017년 말 베이징에서 외자 독자 기업 설립이 처음 허용됨. 经济日报(2017. 12. 22), 「国务院:允许外商投资航空运输销售代理企业」.

25) 기존 자유무역시험구는 중외 합자 여행사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베이징에서는 2019년 2월 외자 독자 여행사에도 허용함. 김주혜(2019), 「베이징시 서비스업 3차 대외개방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26) 『아주경제』(2019. 9. 2), 「중국, 자동차 시장 살리기 총력... "무역전쟁 장기화 부담」.

27) 『中国政府网』(2018. 11. 21), 「李克强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 决定延续和完善跨境电商电子商务零售进口政策并扩大适用范围等」.

3. 평가 및 시사점

■ 이번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지정은 중국정부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변경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인접국과의 협력 및 일대일로 정책 추진 강화 의지가 큼을 보여줌.²⁸⁾

- 연해·내륙 거점과 같은 무역·투자 원활화 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헤이룽장·광시·윈난 등 변경지역에서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점경중점지역 개발정책이 탄력을 받고 변경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
- 인접국과의 교역 통로이자 일대일로 경제회랑 관문 지역들이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었으며, 일대일로 정책과 유사한 조치가 자유무역시험구 육성 방안에 많이 담김.

■ 중국이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를 기반으로 러시아·아세안 등지로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감에 따라, 러시아·아세안 지역에서의 한·중 경쟁 심화에 대비할 필요

- 이번 신규 자유무역시험구 육성방안에도 드러나듯이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정책은 단순히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나 교역환경 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조하는 조치들 역시 포함하고 있음.

■ 또한 획기적인 투자개방 조치보다는 투자·무역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일대일로와 같은 국가 대전략·지방 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對중국 진출의 거점지역으로 활용하려면 이러한 특성을 숙지할 필요

- 2017년에 지정된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에서부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짐.
- 자유무역시험구의 투자개방도는 초기 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중국정부가 투자개방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이 나타남.
- 따라서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시 특별한 투자개방 조치를 기대하기보다는 각종 통관·행정심사 절차 간소화·제도화 및 각 지방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 육성이 기업 진출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심화를 주 육성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산둥성 자유무역시험구를 최대한 활용해 △ 한·중 산업단지 발전 확대 △ AEO 인증제도 강화 △ 교육·관광·의료 서비스 진출 환경 개선 등 한·중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산둥성 자유무역시험구는 옌타이(烟台)시에 위치한 한·중 산업단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투자·무역 원활화 조치를 파악하고 이를 한·중 산업단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 AEO 인증제도 강화가 자유무역시험구의 한·중 경제협력 심화 관련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4년부터

28) 中证网(2019. 8. 27), 「商务部研究院副院长张威：沿边地区首次纳入试验区范围」.

시행된 한·중 AEO 인증제도가 공인절차 간소화, 한·중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AEO 관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²⁹⁾

- 의료·양로 건강센터 건설 지원 역시 한·중 경제협력 심화 관련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주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산둥성 측에 요구해볼 수 있음.
 - △ 병원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 병원 설립에 참고할 수 있는 질병통계, 수가체계, 현지 수요 등 정보를 우리기업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 의료장비 및 의약품 인허가 관련 통관 절차가 신속하고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의료기관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음.³⁰⁾
- 산둥성 자유무역시험구가 일부 투자개방을 강조하고 있는 교육, 관광 분야 개방조치를 활용하여 우리기업 진출을 확대해볼 수 있을 것임.
 -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한국 단독 투자로 중국인의 수요가 많은 의료·미용 기술 분야 학원을 설립하거나, 한국 여행사를 설립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KIEP**

29) 『노컷뉴스』(2019. 4. 15),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속도낼까? 공동연구용역 중국서 발표」.

30) 이상훈 외(2018), 『한·중 주요 도시간 무역자유화 시범사업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KIEP 산업통상자원부 수탁용역 보고서.